

“전북, 특별자치도로 미래 그려가야”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북지역 출범식 개최

자동차·조선산업 부활
농생명수도 등 정책 제안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송기도, 이하 균발위) 전북지역 출범식 및 정책발표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두관 송기도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90여명이 참여했다.

이어, 균형발전위원회 전북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 임명장 수여 및 전북지역 주요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균발위 전북위원회는 향후 선거기간 동안 전북지역 조직 활동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 출범식에서 추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기 때문”이라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북지역 출범식 및 정책발표회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일국에서 다극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철학을 전면에 표방한 바 있다.

김두관 균형발전위원장은 “전북은 전남권 메가시티와 정체성이 구별되는 특별자치도로 미래를 그려가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 전북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도 균형발전위원장은 이미 지난 출범식의 정책발표를 통해 5극3특체제, 메가시티 연결 동서철도망, 균분회계의 획기적 개선과 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정책을 제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제안한 주요 정책으로는

▲자동차와 조선산업부활, ▲금융·탄소소수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축 전북 ▲세계농업대학(KFAO)설립을 포함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육성, ▲지역공공의료확충과 새만금친환경개발, ▲공학과 철도교통망 등 인프라 확보 등이다

/유호상 기자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숙원 해결

단지 내 공동시설 건립 확정

김윤덕 의원, 주민 간담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와 함께,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를 찾아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 착공을 알렸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은 그동안 주민 소용 공간, 경비원 휴게소 등이 협소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LH본부 등을 찾아 끈질긴 협의 끝에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주민공동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으로 필요가 없어진 LPG저장소 공간을 철거하고, 5억여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1월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 되면 경비원휴게실, 주민회의 공간, 헬스장 샤워실 등이 들어선다.

남원시 금동주공아파트 임차인대표 안덕선 회장은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협소해 불편을 겪어왔다”며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공동시설 건립을 위해 애써주시 김윤덕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저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다”며 “이번에 건립되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소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대선 정책·공약 개발 ‘속도’

조지훈, ‘전주 누비기’ 가속화

여성분야 정책·공약 개발 나서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등한 사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행보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한 정책·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재명 선대위 정책본부 부분부장으로서는 현장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쌍끌이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13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성평등플랫폼에서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장, 김미희 성평등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김린 이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합동조합 대표, 조선희 전주시사회혁신센터 성평등전주 소장 등을 만나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지현 소장은 “비무동 이후 성폭력 상담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직장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피해가 전체 상담건수의 34%나 차지한다”며 “하지만 성희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 영세 사업장의 경우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다. 해서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경숙 센터장은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종사자에 대한 지원책과 전주시의 여성 정책이 미흡한 만큼 이를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린 대표는 “노년 여성 인가구를 위한 주거공공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선미촌을 새로운 공간으로 변화시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됐지만 선화촌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이 역시 의지를 갖고 정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고민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약화하는 한편, 중앙으로도 현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경진위원장은 대선에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전주 누비기를 더욱 가속화,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아 대선 정책·공약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위해 발표한 정책·공약 보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글로벌 시대, 도내 청년들의 고민은?

민주 이재명 대선후보
외교특보단 전북 방문
코이카 봉사 프로그램 활용
해외 안전 대책 등 설명
건의사항 정책 반영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외교특보단은 13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시대, 찾아가는 JM의 청년외교상담소’ 전북권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외교특보단(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은 13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시대, 찾아가는 JM의 청년외교상담소’ 전북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여명의 청년을 포함한 해외취업,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외교특보단은 글로벌 활동과 관련한 정보 사각지대인 지역을 찾아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지역사회상향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이 대변한 추사에서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를 경험하고, 세계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면서 “지역 청년들이 과감히 세계를 꿈꾸고 도전하는 나라,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청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 청년들은 워킹홀리데이 코이카, 공공외교, 기후변화 대

응, 해외취업, 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고충과 개선사항을 제기했다.

특보단은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하면서,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권태민 전 코스타리카 대사는 코이카봉사단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기업 취업 때 주의사항, 이정관 전 브라질 대사는 해외 안전 대책, 김은중 전 루마니아 대사는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활용방안, 최연호 전 남아공대사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의 장단점, 김현명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해외 취업을 위한 외국어 준비의 중요성, 노광일 전 태국 대사는 취업에 대한 해외 경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노벽 외교특보단장은 “외교특보단은 전직 대사들과 국제관계 전문

가들로 구성된 만큼, 글로벌 활동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년층 외교전문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앞으로 청년들의 글로벌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 “생생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특히 행사 뒤 벌어진 특보단들과 소그룹 멘토링 대화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외교특보단에는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조원명 전 브루나이 대사, 이백순 전 호주 대사, 정미애 전 니가라 총영사, 김동길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원 소장, 강명구 뉴욕사립대 종교교수, 박종철 국립경상대 교수 등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

근속기간 5년으로 축소

신영대 의원,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장기재직 우수근로자를 추천받아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우수근로자 추천 요건을 현행 중소기업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동일한 중소기업인 경우 3년으로 축소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자치분권 2.0 맞아

인사위·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전주시의회가 13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의회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성된 인사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회의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인사위원회는 시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심규문 의회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고, 법조와 학계, 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위촉됐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법조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7명으로 위원장은 황선철 변호사가 맡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전주시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김윤성 기자

이항근, ‘도심지역 거대학교-과밀학급 완화방안’ 제안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는 전주 등 도심지역의 거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육부의 학교 신설억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도입해 학교 신설 등 과밀한 교육에 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출마예정자는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이유로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주 예코시티 중학교 설립문제·고등학교 이전 좌절, 완주군 의회의 상봉지구 중학교 설립 결의 안 채택 등에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른 지방과 수도권의 교육 격차를 양산할 것이라며, 학교의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뒤 지방 도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의 초중

학교 24.9%, 중학교 55.3%, 고등학교 33.2%가 학급당 학생수가 26~30명에 이르고, 고등학교의 10.9%는 31~35명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출마예정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는 법제화를 통해 학교 신설과 학생 수 상한선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교사들도 교육부차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초중고에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민주 도당 선대위 청년위 필승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필승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전주시청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원식 선대위 특임본부장(노원규를 국회의원), 박용진 공동 선대위원장(강북구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필승 결의대회는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활동을 공언하고, 청년 당원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대선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 기조에 맞춰 당내 경선 캠프에 참여한 청년 당원들이 폭넓게 결합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 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한상욱 익산시 의원, 김성주 군산청년포럼 대표, 나경



균 전 JC 전북지구 회장, 오성현 전북 청년경제인 연합회장, 김동현 전주시 농구협회 회장, 이정훈 전 전북청년포럼대표, 함정훈 청년문화활동가 청기와 대표, 김민식 한국농수산대학 총동문회 부회장 고지국 전 와이즈맘 20-21 회장, 정이영 쇼호스트아카데미 대표, 김형성 전 원광대학교 50대 총회장이 선임됐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